

사설

출가, 그 아름다운 회향

박연태라는 대학총장 국회의원 신 문사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사회 저명 인사가 남은 생애를 수행으로 마감하겠다고 출가하여 회계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유교적 가치가 사회변화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인도에서는 자식들을 다 키운 뒤 나이 들어 출가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것을 임사기(林棲期)라 한다. 조용한 숲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이 사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행 등을 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욕망과 처절한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다. 욕망의 추구가 역사를 진보시켰다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나 본질적 가치가 욕망에 의해 판가름 된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순과 갈등, 맹목적 삶의 욕구

와 고원한 가치의 추구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진정한 열반의 기쁨을 맛보려 하지 않는다.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청정한 마음자리이다. 태어나기 이전의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무상한 자연 속에서 순응의 도리와 달관의 경지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 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출가자는 더욱 정진해서 인젠(天人)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재가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노(老)거사의 출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느껴진다.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란 점을 되새겨 준다.

‘북한산’에서 정토구현으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을 반대 해 온 불교계가 9월 8일 ‘참정정부의 북한산 관통논쟁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기도정진 회향법회’를 갖고 환경보살의 길을 더욱 굳건하게 걸 것을 서원했다. 이 회향법회는 7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 이행 촉구 단식기도를 마감하는 자리기도 하고, 새롭게 전개해 갈 불교계 환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계종의 모든 교구본사와 종단협의회 소속 전 종단의 참여가 일사불란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따지고 보면, ‘북한산’은 불교계 환경운동의 중요한 상징이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전불자의 환경보살화라는 과제 역시 오늘날 불교환경운동의 현실적인

성과와 지향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실을 담보하면서 법적증상 모두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환경운동 현장의 화두가 아닌가?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보다 많은 주변의 공감대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청정국토 건설의 원을 세운 불자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맑아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과 사회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에는 언제나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명제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다.

불교계 환경운동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청정국토건설을 위한 한결같은 실천의 원력공간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특정단체의 이상과 목적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 의해 온 국토, 나아가 법계가 청정하도록 하는 인민의 환경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교무형문화재 발굴·보존해야

총 115종목 중 불교 관련 4종목뿐

절음식·의례·그림자 연극등 대상은 풍부

문헌연구·전문가 확보·종단협력 등 필요

조계종은 올 3월부터 불전장업 용 지화(紙花, 종이꽃) 조사를 진행, 11월에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9월 28일에는 조계종 스님들이 영산재를 재현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맥이 끊겨가는 불교 무형문화재 장인을 발굴하고 현존하는 작품과 기술을 찾아내 보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급일 뿐,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불교무형문화재 보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 문화재인 데 비해 무형문화재는 전체 115종목 가운데 영산재, 단청, 승무, 불교조각 등 4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주강현 우리민속연구소장은 “불교문화 하면 탑과 불상만을 연상하지만, 절집에서 이뤄지는 모

든 무형의 자산도 불교문화의 또 다른 절반”이라며 “지금까지 유형문화재에만 집중돼 있던 관심을 무형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사찰음식, 각종 의례, 절집의 세시절기, 만석중 놀이와 같은 그림자 연극, 불교무예, 차문화 등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도 손색없다”고 주씨는 강조한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과거 정치적 과도기를 이유로 무형문화재 보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술품인 직업이 ‘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 기술보존자의 고령화, 이에 따른 원형보존과 전수 교육의 어려움 등이 모두 불교무형문화재의 빈약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 소장의 이러한 지적은 무형문화재 보존이 어려운 이유인 동시에 보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성보보존위원 원영 스님은 “무형문화재 보존의 관건은 사람만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헌연구를 통한 문화재 발굴, 현존하는 무형문화재의 세분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문화재 보존기구 설치, 문화재 전문가 확보, 범 종단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갯바위주차장 불법영업

경산시, 시정 약속

갯바위 공영주차장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역불교계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9월 4일부터 주차장 관리대행권 일시중지를 명하고, 상가부지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 여부도 법률자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9월 5일 은해사와 선본사 스님 30여명이 경산시청 시정실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운영중 경산시장과 만난 스님들은 이외에도 불법담합입찰로 밝혀진 상가부지의 원상회복, 관련공무원 해임, 경산시장의 공개사과 등도 함께 요구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경산시의회에도 갯바위 주차장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를 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구 기자

한국의 대표적 저항시인 조태일(1941~1999, 전 광주대 예술대학장) 시문학기념관이 출생지인 곡성 태안사에 문을 열었다.

곡성 태안사는 9월 7일 경내에서 백낙천, 염무웅, 이호철, 민영, 김준태, 나희덕, 박재구 등

우며졌다. 개관식에서는 또 69년 조태일 시인이 창간해 87년 당국의 압력으로 폐간된 <시인>지 복간보고회도 열렸다. 김지하 등을 배출했다가 폐간됐던 <시인>지는 이도윤 시인이 사비 2천만 원을 들여 발간한다.

태안사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개관

시집 전시실·창작실·휴게공간등 갖춰

문인들과 유족, 지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기념관은 연건평 170여 평의 목조 건물로 조태일 시인의 출생과 성장, 활동상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비롯해 시집 전시실, 창작실, 휴게공간 등으로

1941년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 시인은 64년 경희대 국문과 재학 중 ‘아침선박’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눈길사랑’, ‘필요한 피’, ‘홍은도의 뼈속세’, ‘식칼문’, ‘국토’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현장스님 불경필사본

바미안 석굴에서 발견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의 석굴에서 당 현장(602~664) 스님의 산스크리트 필사본이 발견됐다.

9월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문화재단연구소 소속 연구진들은 구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계곡의 석굴 유적을 조사하던 중 가로 5cm 세로 2cm의 불경 필사본 5개를 발견했다. 필사본은 나뭇조각에 붙여 놓은 것으로, 서체로 미뤄볼 때 당 현장 스님의 필사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대장경 판본 연구를 하고 있는 최종남 교수(중앙승가대)는 “주석서인지 율기는 과정의 필사본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뒤따라야겠지만, 원전이 분실된 경전의 일부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청도 용산사 뒤 30m서 도로공사

대응전군열 등 각종피해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사찰의 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공사 시행중지 촉에서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부산간 산업고속도로 공사현장 중 문제가 된 곳은 제4공구지역인 경북 청도군 내리 용산사 이 사찰 바로

뒤편 30m 지점을 지나는 도로공사로 인해 대응전에 금이 가고, 균열 때문에 법당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지 도명 스님은 “절 뒤편 절까지 사면의 붕괴가능성이 높아 사찰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과 시공업체 측이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행정문서 8일부터 공개

문화재청, 인터넷 통해

문화재청은 9월 8일부터 홈페이지(www.ocp.go.kr)에 ‘정보공개마당’을 개설해 결재 문서 및 보고서, 문화재 관련 통계·현황자료 등의 행정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권형진 기자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차장안내)
5호선 통대문역동양역 6번출구 (인왕계보신터빌딩 지하) 금강식당 앞방 배려

‘현대’민명 심민섭

부처님 가까이서 비축노릇

‘한국 선문화학회’가 창립됩니다

창립선언문

만유의 실존을 통찰과 직관력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적(空寂)속에 상상과 조화로써 세상을 이끌어 온 선(禪)은 인류의 정신적 의지이자 마음의 평온과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정신문화의 보장(寶藏)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통해 불안과 고뇌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 결핍 없는 무애의 삶을 살았으며, 이웃에게는 자애와 여유, 안심(安心)과 적정으로 중생사를 이겨내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운데 급변하는 오늘날의 삶의 현상은 시대의 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세계와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고, 선 또한 여기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간성 상실을 조래한 오늘날의 정신문명은 이제 더 이상 인류를 구제해 줄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류를 파멸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선은 바로 이런 인류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활로(活路)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상이니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문화학회(가칭)를 창립하여 선학을 통한 시대사상의 정립 및 정신적 자애와 삶의 평온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선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및 재조명, 선을 통한 현대적 제 문제의 극복방법 고찰과 대안제시, 기존 선문화에 대한 연구,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문화의 연구와 발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선사상의 정립 및 현대적 조망, 시대문제의 선학적 접근과 극복방안, 새로운 삶의 환경 제시를 통해 선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루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교류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학과 선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0. 4.
한국 선문화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 안내

한국선문화 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를 각계의 전문가와 제방의 고승대덕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3년 10월 4일(토) 1시 30분

■ 장소 : 불교방송 3층 법당

- 제 1주제 한국 선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 사회 : 김성영(중앙승가대 교수)
- 발표 : 이택진(창원전문대 교수)
- 토론 : 김병룡(원광대 강사), 김영욱(아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 2주제 한국 수행문화 현황과 전망

- 사회 :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 발표 : 문윤식(동국대 강사)
- 토론 : 미산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 전화 : 017-243-5838 E-mail : zen@zenculture.org 홈페이지 : www.zenculture.org

〈발기위원 명단〉 각박스님(초기불전연구회 지도부장, 고창국(부경대 교수), 고희수(동원대 교수), 고재욱(강원대 교수), 권오민(경성대 교수), 김 진(울산대 교수), 김경집(위덕대 교수), 김경희(대구대 교수), 김광식(부천대 교수), 김규철(불교방송 사장), 김낙진(진주대 교수), 김명식(진주교대 교수), 김문용(고려대 민원 교수), 김미영(서울시립대 교수), 김방홍(원광대 강사), 김병현(외국어대 교수), 김성영(중앙승가대 교수), 김성철(동국대 교수), 김영선(인천대 명예교수), 김영철(가천대 명예교수), 김용준(동국대 명예교수), 김원철(한양대 교수), 김은중(원광대 강사), 김중영(연성대 교수), 김중순(강원대 교수), 김주현(강원대 교수), 김준홍(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찬원(경북대 강사), 김태원(무성선원 원장), 마성스님(불리문화연구소 소장), 문윤식(동국대 강사), 미산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박광서(서경대 교수), 박봉우(강원대 교수), 박성배(스토틀부대 교수), 박세일(서울대 교수), 박영택(충주대 교수), 박영택(서경대 교수), 박영환(강원대 교수),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박태원(경희대 강사), 박종민(인제대 교수), 박태원(울산대 교수), 박해당(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방 인(경북대 교수), 선해스님(선정진공자, 성대문화재단 교수), 소은희(이화여대 교수), 손창대(국민대 명예교수), 송영선(한양대 강사),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신원환(서경대 교수), 신승환(강원대 교수), 신희섭(KIST 교수), 안재철(제주대 교수), 안종대(강원대 교수), 양무석(대전보건대 교수), 양행진(고려대 교수), 오성무(고려대 교수), 오재현(한림대 교수), 오재현(선조각가), 육한석(강원대 교수), 용운스님(초의미술재단 이사장), 원경스님(송광사 학장), 원정근(중앙승가대 연구원),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윤영석(고려대 교수), 윤영택(제주대 교수), 윤원철(서울대 교수), 윤종갑(부산가톨릭대 교수), 윤철환(‘시우’주 주간), 윤정희(서울교대 교수), 윤희진(고려대 교수), 이계정(여성신문사 전 사장),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이병욱(중앙승가대 연구원), 이복수(강원대 교수), 이상미(성신여대 강사), 이선미(방송위 시장정보관리위원회 위원), 이선욱(선무용가), 이수원(주)동진메카트로닉 대표이사), 이승환(고려대 교수), 이승철(경문대 교수), 이종필(전남대 교수), 이진우(부산대 교수), 이창구(전북대 교수) 이태수(위대대 교수), 이호철(강릉대 교수), 이효길(안동대 교수), 임명희(동신대 강사), 임영택(대전대 교수), 임영택(단국대 교수), 장현천(한국부동산개발부(주) 고문), 장호득(단국대 교수), 전경희(부경대 교수), 전영학(JNLtech 대표이사), 정계섭(덕성여대 교수), 정경호(고려대 교수), 정기문(강원대 교수), 정대원(동국여대 교수), 정성홍(중문학 박사), 정세근(충북대 교수), 정영근(서울신대대 교수), 정현구(영선대 전 총장),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조영택(고려대 교수), 조영택(원광대 교수), 조영택(원광대 교수), 조호스님(동국대 교수), 진철문(한국 조형연구소 대표), 차차석(한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최성철(조선대 교수), 최연식(서울대 강사), 최재영(외국어대 교수), 최정호(중앙대 상연구소 연구원), 최중운(강원대 교수), 한기문(상주대 교수), 하인섭(덕성여대 교수), 허일범(진강대 교수), 현남규(제주대 교수), 핵월스님(동화사 강주), 홍석경(고려대 교수), 홍원식(경명대 교수), 황영태(한국예총 김천지부장), 황영태(서울교대학원대 교수), 황인규(중앙승가대 연구원), 양민석(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소 연구원), 손수일(번호사), 김영재(대전시립미술관 관장)